

그림·시·음악으로... '천사의 섬' 다시 보기



주라영 작 'Beyond Here&Now-임자도'



김해성 작 '임자도 여행'

'메이홀' 13일~8월 31일 '내 사랑 신안 섬마을' 전

추락한 이미지 회복하자

고근호·곽재구·한희원 등

지역 예술인들 뜻 모아

작가 10여명 신안 직접 찾아

섬 정서 담은 작품 제작 전시

내일 오프닝 첼로 연주·시 낭송

풍경 좋고 넉넉한 인심에 흥어 등 음식까지 맛있는 신안. 무인도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는 섬들이 모여 있어 '1004(천사)의 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근 신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며 좋았던 이미지는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일부 사람들은 '천사의 섬'을 비꼬아 '악마의 섬'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지난달 말 시민자생예술공간 '메이홀'이 개최했던 '간재미 영화제'(간이 맞고 재미있는 음식 영화제)에 참석했던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전라도가 비하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그릇된 사람들 때문에 신안 주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주홍 작가(메이홀 큐레이터)도 신안 섬마을 여교사 출신이다. 그녀는 2006년 안좌중학교에서 약 1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주 작가는 "원래 그렇게까지 욕 먹을 만한 곳이 아니다"며 "교사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참 정이 넘치고 순박했는데 이미지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한국 추상화를 태동시킨 안좌도 출신 김환기(1913~

1974), 한국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자은도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 신안은 예술 밀바탕에 깔려있는 평화 정신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예술인들 모두 신안에 '마음의 빛'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인들은 예술로써 신안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미지를 바꿔보자고 뜻을 모았다. 메이홀에서 13일부터 8월31일까지 '내 사랑 신안 섬마을'전을 개최한다.

전시를 위해 메이홀 관장 임의진 목사를 비롯해 주홍 작가, 곽재구 시인, 김현옥 작곡가 등 예술가 10여명은 지난달 29일 신안을 방문했다. 보고 느끼고 신안에서 주워 온 물건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고근호 작가는 바닷가에서 주운 따개비, 나무토막, 빗줄로 정크아트를 선보인다. 작품 '바다소리'는 나무에 박힌 못, 볼트를 그대로 활용해 웃고 있는 사람 모습을 형상화했다.

한희원 작가도 주워 온 물건으로 신안 정서를 표현했다. 작품 '섬'은 길에 버려진 낡은 나무 토막에 연한 녹색을 칠해 바다를 표현한 후 외로이 떠 있는 돌섬을 등장시켰다.

김해성 작가가 출품한 '임자도 여행'은 밝은 소재들로 화폭을 가득 채웠다. 바이올린을 켜는 소녀, 배를 타고 신나는 아이들, 등대 등 오밀조밀한 조형미가 특징이다.

독특한 시각으로 공간 이미지를 흑백 화면으로 표현하는 리얼전 사진 작가는 해안가 우두커니 서있는 나무 뒤로 펼쳐진 섬풍경을 렌즈에 담았다. 쓸쓸하지만 아련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전해진다.

이외에도 김영태 사진작가는 '그림자 땅-신안#1', 주라영 작가는 'Beyond Here&Now-임자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 오프닝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김현옥 작곡가는 신안에서 영감을 얻은 곡을 첼로 연주로 선사할 예정이다. 또 곽재구·한경숙씨는 시 낭송을 한다. 흑산도 출신 이주빈 오마이뉴스 기자는 고향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방문객들을 위해 맛깔난 흥어 음식도 마련된다.

여름방학 기간 열리는 전시는 매주 토요일·일요일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전시 소식을 들은 지역 작가들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작품은 추가될 예정이다.

임의진 목사는 "신안이 안 좋은 쪽으로만 매도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가 이미지를 바꾸고 신안주민 고통도 덜어 주길 바란다"고 "이런 게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임의진 작 '비금도의 저녁무렵'

'음악대장' 광주 온다

난장사운드페스티벌 9월 3~4일 광주여대 무대

'국카스텐' 등 20개팀 공연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우리동네 음악대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록그룹 국카스텐이 광주 무대에 선다.

제1회 난장사운드페스티벌이 9월3~4일 광주여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장르 뮤지션들의 100% 라이브 공연으로 사랑을 받아온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기획·연출 김민호, 이하 '난장')이 방송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음악 축제다.

20여팀이 참여하는 출연진 중 눈에 띄는 이는 '우리동네 음악대장' 하현우의 국카스텐이다. 2년간 '난장'의 MC를 맡았던 하현우는 '난장지존'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인기가요 '별빛이 내린다' 등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가사로 사랑받고 있는 '안녕바다', 흥대 여성으로 불리는 '뷰렛', 모던록의 대세 밴드 '뽕니', '질은' 등이 출연한다. '뷰렛'과 '안녕바다' 역시 '난장' 사회를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그밖에 '리플렉스', '전국비틀기연합' '아디오스오디오', '위아더나잇', '더베인' 등이 함께 한다. 2차 라인업은 8월 초 광주MBC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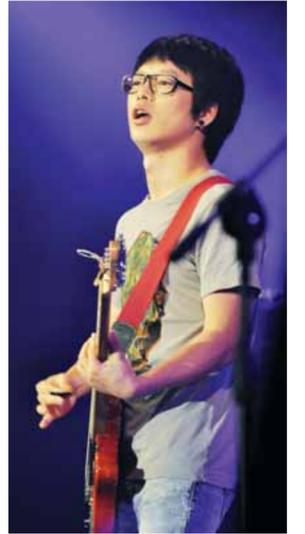
2007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난장'은 인디뮤직, 록, 재즈, 블루스, 힙합, 트로트 등 음악적 완성도를 갖춘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라이브 음악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방송 415회, 공연녹화 220회를 진행하는 동안 450여 팀, 3000여명이 출연했으며 관객만 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소촌아트팩토리 내일 이윤선 교수 초청 강연회

소촌아트팩토리가 13일 오후 7시30분 이윤선 목포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 강좌는 인문학콘서트 '라디오가 있는 음악살롱' 마지막 행사다.

이 교수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우리 신화의 상징과 속 이야기를 명쾌하게 들려줄 예



또 재즈밴드와 메탈밴드의 콜라보를 시도한 100회 특집 '빅밴드메탈' 편은 한국PD연합회의 '이 달의 PD상'을 수상했고, 200회 특집 '산울림을 노래하라'는 2011년 제18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티켓예매는 13일 낮 1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마루에서 가능하며 2일 관람권 가격은 3만원이다. 문의 062-360-2125.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최근 이승환, 팔로알토, 10CM 등의 라인업을 발표한 '광주사직사운드파크 페스티벌'과 같은 날 공연을 하게 돼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5회 2016 청소년축제
The 5th Youth Festival

No Bullying, Yes Bling!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 안내 | 교육부 장관상 및 시·도 교육감상 수여

모집분야 |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대상 |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 7월 18일까지

문의전화 | 062.220.0555 / 010.7174.125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주최 |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